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핵무기 다수 등장

야르스 등 전략핵 미사일
핵전쟁 대비 지휘통제기
IL-80 12년 만에 선보일 예정

러시아가 '대조국전쟁'으로 부르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7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는 핵전력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전승절(9일)을 이틀 앞둔 7일(현지시간) 크렘린궁 앞 붉은광장에서 실시한 퍼레이드 최종 예행 연습에는 전략핵 미사일과 함께 핵전쟁에 대비한 지휘통제기 일류신(IL)-80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둠스데이(Doomsday, 최후의 날)'로 불리는 IL-80은 러시아가 1980년대에 개발한 것으로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다.

핵전쟁 발발 시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탑승해 공중 명령 센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IL-80이 전승 기념 퍼레이드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2010년 이후 12년만으로 알려졌다.

공중 군사 퍼레이드에는 승전 77주년에 맞춰 모두 77대의 전투기와 폭격기, 공중급유기 등이 참여한다.

특히 8대의 미그(MiG)-29SMT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상징하는 알파벳 Z 모양으로 비행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지상에서는 RS-24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도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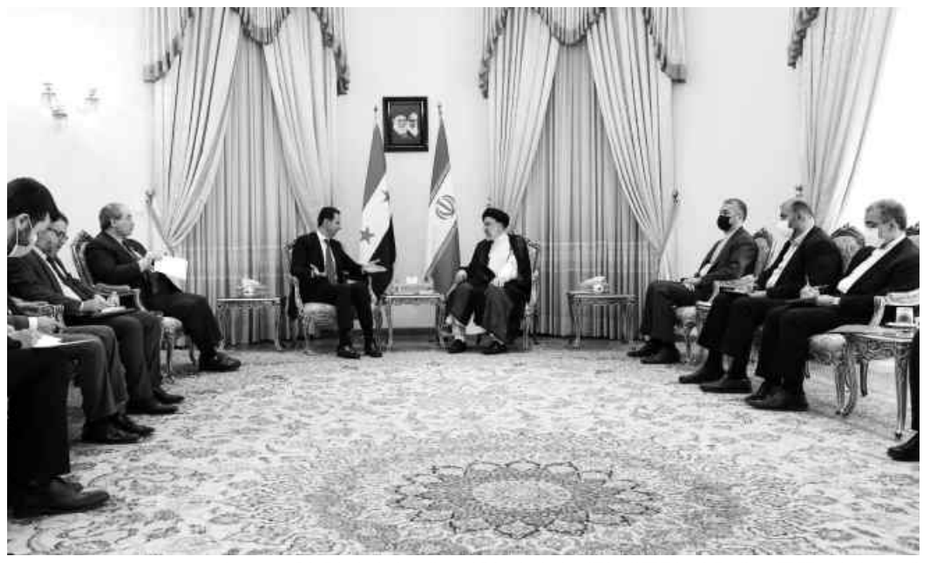
2010년 처음 실전 배치된 야르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뚫을 수 있는 공포의 ICBM으로 평가된다.

ICBM '토폴-M'의 개량형인 야르스는 1만2천km를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최소 4개의 분리형 독립 목표 재돌입탄두(MIRV)를 탑재한다. 탄두의 위력은 150~250kt(TNT 화약 폭발력 기준 15만~25만t) 규모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12kt)의 12~20배에 달한다.

이스칸데르는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이다.

이번 군사 퍼레이드는 러시아가 지난 2월 말 시작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다. /연합뉴스

전승절을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행정청사 외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는 'Z'자가 창문의 조명을 이용해 그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시리아 정상회담 8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가운데 오른쪽)이 수도 테헤란을 방문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먹이 찾아 뉴욕 거리 점령한 쥐떼 '인간 일상회복'에 음지 돌아갈까

시, 렙토스피라증 등 대책 강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음식 쓰레기가 줄자 먹이를 찾아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미국 뉴욕의 쥐떼가 '인간의 일상회복'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거리라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시 민원 콜센터에 올해 1~4월 접수된 쥐 목격 신고는 약 7400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6150건)보다 20%,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4월보다는 60% 이상 많다.

온라인 집계가 처음 시작된 2010년 연간 신고 건수는 1만500건이었는데,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에는 갑절이 넘는 2만5000건으로 늘었다.

팬데믹 여파로 식당이 문을 닫고 지하철 이용객이 줄어 먹이가 부족해진 쥐가 거리로 뛰쳐나온 결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 실내영업이 한때 제한되면서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매장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쥐 방제 전문가인 리처드 레이놀즈는 "팬데믹 기간 일어난 일은 (쥐 입장에선) 식당이 죄다 문을 닫은 것과 같다"면서 "야외식당이 생긴 건 그런 쥐들에게 다시 음식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음지가 아닌 야외에서 먹이를 찾다 보니 더 잦게 사람의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뉴욕의 쥐는 그런 환경 변화에 적응해 실외에서 먹이를 찾는 습성을 발달시킨 것으로 보인다.

코넬대 소속 유해동물관리 전문가 매트 프라이는 "쥐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며 "2년 만에 일상을 회복하면서 인간의 행동 양태와 직접 연관된 쥐 문제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출몰하는 쥐로 오랫동안 골치를 앓아 온 뉴욕시는 잠금장치가 달린 쓰레기통을 시내 곳곳에 설치해 쥐가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 제로 코로나 극단화… '군령' 표현까지 등장

당서기 "방역 군령 끝까지 이행"
1명 감염에 동 주민 전원 격리소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상하이 보위전'을 꺼내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관한 이견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지난 5일 '상하이 보위전 승리' 목표를 제시하고 난 뒤 상하이시는 그간 점진적으로 진행한 봉쇄 완화 조치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당 중앙정치국 위원이기도 한 리창 상하이 당서기는 8일 방역 현장을 시찰하면서 "방역 군령을 이행하는 것의 관건은 각종 방역 업무를 끝까지 잘 해나가는 것"이라며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철저히 관철해 '제로 코로나' 총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더욱 단호한 조치로 공격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로 코로나' 달성 목표를 군사 명령인 군령에 비유한 리 서기의 발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사고'를 낸 상하이 지도자들이 상부로부터 얼마나 큰 압력을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경제·사회 손실을 감수하고 '경제수도'인 상하이를 40일 넘게 봉쇄했지만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당과 정부의 지도력이 크게 타격받고 있다는 점에 중국 당국은 초조해하고 있다.

강력한 봉쇄가 이어지는데도 여전히 상하이의 일일 신규 코로나19 감염자는 4000명에 육박해 매우 느린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우선 목표로 삼은 '사회면 코로나 제로'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은 상태다. 격리소 바깥을 뜻하는 '사회면' 일일 신규 감염자가 최근 10명 안팎까지 떨어졌지만 공공·민간 분야에서 최소한의 사회 필수 인력의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신규 감염자 규모를 더 낮추는 데 한계점에 봉착한 모습이다.

행정 일선의 방역이 이처럼 극단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는 관료주의가 팽배한 중국의 체제 특성도 크게 작용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

탈레반 여성 부르카 착용 명령에 반발 조짐

카불 등 대도시 중심 지시 불복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부르카 착용이 의무화되자 공포 통치 본격화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일부에서는 여성의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9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이 지난 7일 최고 지도자 히바툴라 아쿤드자다의 이름으로 여성의 공공장소 차도리 착용 의무화를 발표하자 현지 여성과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AFP통신은 차도리는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가리는 부르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부르카는 눈 부위만 망사로 뚫린 채 얼굴 등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말한다.

여성 운동가 타흐미나 타함은 탈레반의 발표와 관련해 AFP통신에 "나는 수감되고 있다"며 "인간임에도 자유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아쿤드자다는 포고령에서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매우 연로하거나 어리지 않은 여성은 눈을 제외한 얼굴을 가려야 한다"며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아버지나 가까운 남자 친척들은 투옥되거나 정부에서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서부 대도시 헤라트에서 조산사로 일하는 아지타 하비비는 "여성의 손과 얼굴이 가려져야 한다는 말이 어디에 씌어있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했던 라일라 사하르는 전신을 가리는 옷을 입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남자 가족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무지구(상가매매)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